

초기 대구·경북지역 장로교의 전도부인 양성과 활동

김병희

(대신대학교, 조교수,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전도부인의 실태
- III.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 IV. 부인전도회 조직과 활동
- V. 나가는 말

[초록]

초기 한국 교회의 사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도부인들의 역할과 활동은 한국교회의 성장뿐 아니라 대구·경북지역 교회의 성장에 초석이 되었다. 특히 전도부인의 다양한 활동과 희생적 헌신은 대구·경북지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교회는 전도부인들의 공적을 배제한 채, 남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대구·경북지역 교회에서 장로교의 전도부인이 어떻게 양성되어 활동하였는지를 밝히고 또 대구·경북지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았다.

전도부인은 한국의 언어와 풍습에 익숙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던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이해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네비우스 선교정책 프로그램을 따라 비정규 과정인 부인사경회, 부인성경반, 성경연구반과 정규과정인 성경학교에서 발굴되어 훈련과 양육을 받고 전도부인으로 임명받아 활동하였다.

전도부인은 부인성경반을 운영하고 부인야학교와 사경회를 통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생활을 개선시키고, 여성의 문맹퇴치와 여성 계몽운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또 그들은 성경판매 활동, 순회전도, 해외전도를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을 순회하며 상심한 교인들을 심방하여 위로하고, 개 교회 내에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부흥시켰으며,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대구·경북지역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키워드: 전도부인, 사경회, 성경반, 성경연구반, 부인전도회, 야학교

논문투고일 2022.07.31. / 심사완료일 2022.09.06. / 게재확정일 2022.09.07.

1. 들어가는 말

1893년, 베어드 선교사가 경상도 북부지역에 선교기지를 물색하기 위해 대구를 찾아온 지 어느덧 130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날 대구·경북지역의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여기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과 강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했던 ‘전도부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들은 근대 이행기에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부인들과 여선교사들이 언어와 관습의 장벽으로 한국인에게 직접 전도할 수 없어 한국 여성들 중 일부를 교육하여 전도인으로 양성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선교 초기 한국여성들의 전도와 여성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전도부인들이었다. 이들은 엄격한 내외법과 예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얽매어 있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여성들이 자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준 한국 교회의 여성지도자들이다. 한국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도부인들은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한 채 희생적인 봉사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냈다. 그러나 전도부인들에 관한 기록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한 전도부인은 그들의 이름 외에는 생몰연도나 이후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 이는 남성 중심적 역사서술에 밀려 이들의 공헌이 축소되거나 배제된 채 지금까지 한국교회사를 서술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전도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덕주는 기독교 여성들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였다.¹ 이영은 1980년 초부터 기독교 전래와 여성의 민족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사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² 송종인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교단별로 전도부인

1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여성들』 (서울: 기독교문사, 1990); 이덕주, “초기 한국 기독교여성 역사 이해”, 『세계의 신학』 (1995).

2 이영, “개신교 전래에 따른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1984); 장혜영, “한국기독교 여성의 민족운동: 1885-1930년대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1985); 양미강, “일제하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1920-1930년대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9); 김수경,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구국운동에 관한 연구: 1920년대를 중심으로”, (長老會神學大學校 神學大學院, 1999); 윤정란,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 연구”,

의 활동에 관한 개설적인 연구를 하였다.³ 또 1995년에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출간한 자료집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은 전도부인에 대한 연구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의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들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회의록』, 『경북노회록』, 『교회보』, 『전도회70주년연혁사』, *40 Years in Korea*⁴,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를 비추어 볼 때, 대구·경북지역의 전도부인 연구는 이 지역 기독교 역사와 교회 성장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도부인들의 배경, 양성,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도부인의 실태

1. 전도부인의 명칭과 유래

전도부인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Bible Women'으로 불렸으며, 문자적 의미는 '전도하는 여자', '성경을 담당하는 여성'이다.⁵ 대영성서공회의 자료에 나타난 'Bible Women'은 부인권서, 여자권서, 여전도사 등 여성 교역자들을 두루 일컫는 명칭이었다. 선교회나 교회의 자료에 표기된 'Bible Women'은 거의 모두 여전도사인 전도부인을 가리킨다. 여성 사역자들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부인권서와 전도부인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0); 윤은순, "1920-1930년대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 금주·금연운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이민호, "1920년대 여성들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애국부인회사건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2).

3 송종인,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 연구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교 신학대학원, 2003); 허연숙, "초기 감리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1885-1935",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김경한, "한국 성결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복음전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교 대학원, 2014).

4 이 책은 대구·경북지방에서 43년간 선교했던 브루엔 선교사의 두 번째 부인인 클라라(Clara Hedberg Bruen) 여사가 남편에 관계되는 선교부 보고서, 편지, 일기, 사진을 모은 자료집이다.

5 이정우, 『한국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1989), 51.

성장함에 따라 전도부인의 수는 점점 늘어났으나, 부인권서의 수는 줄어들어 전도부인과 부인권서들을 구별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⁶

장로교는 1905년~1916년에는 여전도인, 1917년~1929년에는 ‘여조사’, ‘부인조사’, ‘여자조사’로 기재하다가, 1930년 이후에는 ‘여자 전도사’, ‘여자 전도인’로 기재하였다.⁷ 경북노회에서는 1912년~1919년까지 ‘여전도인’으로 기재하였고, 1920년~1923년까지 ‘전도부인’, ‘부인전도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경안노회는 1921년~1927년까지 ‘부인조사’,⁸ ‘여전도인’으로 부르다가 이후에는 ‘전도부인’, ‘부인전도사’, ‘여전도사’으로 기재하였다. 이렇게 전도부인에 대한 혼재된 명칭은 1930년 이후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개교회를 도울 교역자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그 결과 여교역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데 기인한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정규 성경학교나 고등성경학교, 여자신학원 등이 생겨나면서 여교역자의 위치가 확고해졌으며, 이들을 부르는 명칭 또한 점차 공식적인 용어로 정착되었고,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컬어지는 ‘여전도사’라는 직분의 기원이 되었다.⁹

1934년 경북노회는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신·구약 통신과를 졸업한 자를 임시전도사로, 성경학교를 졸업한 자를 완전전도사로 세우기로 결의하였으며, 그해부터 교회 직원은 목사·전도사(남녀)·장로·집사 등으로 구분하였다.¹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전도부인(1953년까지)¹¹과 전도인(1970년까지)¹²의 명칭은 사용되었다.

6 이만열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76-77.

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05~1935) 참조.

8 경안노회는 여조사 자격을 성경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조사 명칭을 주고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인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남녀 전도인과 권서는 1년 1개월 이상 성경공부하기로 가결하였다. 『경안노회 제12회 정기회 회록』 1927. 6. 16.

9 193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은 교회직원으로 항존직은 목사·장로이며, 임시직원은 남녀전도사·전도인·권사·남녀서리·집사, 그리고 준직원은 강도사·목사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9), 73.

10 『경북노회 제32회 정기회 회록』 1934. 1. 5.

11 『경북노회 제53회 정기회 회록』 1953. 12. 14.

12 『경북노회 제60회 1차 임시회 회록』 1957. 6. 6.

2. 전도부인의 규모

1895년부터 1945년 사이의 공식적인 전도부인의 수는 총 1,215명인데, 그중에 감리교 소속 717명, 장로교 소속 209명, 성결교 소속 138명, 기타 교단 소속은 151명으로 밝혀졌다.¹³ <표 1>은 대구·경북지역의 전도부인에 관한 기록인데 이름이 밝혀진 전도부인은 82명이 집계되었으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전도부인들이 활동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 <표 1>과 같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전도부인들은 이름과 사역지만 알려져 있을 뿐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생몰년도조차 남아 있지 않으며 이후에 행적도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이다.

<표 1>대구·경북지역 전도부인 현황

	이름	사역지	출처
1	최경숙	경주	기독신보 10권
2	최영희	지례	기독신보 1권
3	박만우	대구, 포항	기독신보 8,10권
4	김옥선	상주	경북노회록 35회
5	김정숙	안동	기독신보 12권
6	류인성		기독신보 5권
7	신수규	안동	기독신보 5권
8	이신애	안동, 영주	기독신보 12권
9	이순남	영동	기독신보 12권
10	김정숙	영양	기독신보 7권
11	김금선	영주	경 안 노 회 록 24,26,28,33회
12	김현신	영주	기독신보 12권
13	왕경애		기독신보 8권
14	정신옥		기독신보 8권
15	김정숙	영주, 예천	기독신보 8,10권

13 여성사연구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7-8.

16	윤복희	영주	기독신보 13권
17	임재수	영주	기독신보 13권
19	권성찬	영해, 영양	기독교보 1936. 12. 29, 경안노회록 13회
20	김백석	예천	경안노회록 33회
21	김정숙	예천	기독신보 10권
22	최봉학	의성, 예천, 안동	경안노회록 20,21,32회
23	권귀출	예천, 청원, 영해	경안노회록 23,24,26,28,32회
24	설수봉	의성	기독신보 1권
25	권정옥	진보, 안동	기독신보 11권
26	장형옥		기독신보 14권
27	윤복순	청도	기독신보 8권
28	민신영	포항	기독신보 9권
29	박성희		기독신보 10권
30	이순희		기독신보 8권
31	김구암	풍기	경안노회록 33회
32	권창순		경안노회록 24회
33	김금이		경안노회록 24회
34	김순애	달성, 경산, 의성, 영일, 대구, 청도, 영천, 성주, 군위, 영일	경안노회록 24,33회
35	김영숙		경안노회록 24회
36	김정희		경안노회록 24회
37	김주애	영주	경안노회록 26,28,33회
38	김필조		경안노회록 24,33회
39	박주산	영해	경안노회록 32, 33회
40	안주봉	풍기	경안노회록 27회
41	이신애	안동, 의성	경안노회록 24회
42	임재수	영주	경안노회록 19,33회
43	최경애	청도, 성주, 칠곡, 경주, 김천, 상락	경안노회록 26,27회
44	최옥분	춘양	경안노회록 29,32,33회
45	홍남이	의성	경안노회록 33회
46	홍복남		경안노회록 32회

47	김성수	명고옥	경안노회록 27회
48	고순희	양서지방	경안노회록 27회
49	전원구	칠당골교회	경안노회 70년사
50	김이미	국우동	40 Years in Korea
51	김태연	백안동	40 Years in Korea
52	김옥주	의성	경북노회록 97회
53	이주현	달성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54	정일선	경주, 영천, 고령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55	최순은	경산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56	송복희	경주, 김천, 영천, 군위, 선산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57	김남수	청도, 영천, 달성, 영일, 칠곡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58	이민웅	영일, 군위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59	손주안	경산, 영천, 성주, 청도, 칠곡, 경주, 상주, 달성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60	전기숙	청도	전도회 70주년 연혁사
61	신영희	안동	기독신보 12권
62	손복원	의성	경북교회사
63	김순남	대구	경북교회사
64	소쾌순	고령	
65	황환이	포항	경북교회사
66	김명숙	영양	기독신보
67	이복순	의성	쌍계교회 백년사
68	정신복	상주 영주읍	경북노회록 7회, 경안노회 11회
69	정남희	칠곡	경북노회록 7회
70	김임이	칠곡	경북노회록 7회
71	김달이	상주	경북노회록 16회
72	김경수	군위, 칠곡	경북노회록 16회
73	최순언	김천	경북노회록 16회
74	이주현	김천	경북노회록 16,18회
75	손명숙	대구	기독신보 1926
76	신수원	예안	경안노회록 12회
77	김향난		경안노회록 14회

78	권장순	영주	경안노회록 14회
79	권기출	예천, 영해	경안노회록 24호
80	이성연	안동, 영양	경안노회록 28회
81	차복남	봉화	경안노회록 30회
82	정낙선		경안노회록 32회

3. 전도부인의 필요

1885년 이후 한국 선교를 시작한 장로교와 감리교는 여성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교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선교의 주요 대상으로 상류층보다 가난한 근로계급과 여성들에게 더 주력하였다. 특히 여성은 자녀와 가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고 기독 소녀들을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 선교의 목적을 두었다.¹⁴

당시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의 내외법과 가족제도에 묶여있던 여성들에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여성들은 집안일에 얽매어 개인적인 일로 외출하기가 어려웠고 양반 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서는 자유롭지만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한국의 언어와 풍속에 익숙하지 못했던 선교사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 여성의 도움 없이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여성 즉, 전도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전도부인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을 찾아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단권 성경이나 전도 소책자를 판매하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여성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여선교사였다. 1901년 아담스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 본부 총무 엘린우드(F. F. Ellinwood)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저희는 이곳에 여성들을 위해 사역할 커다란 기회가 있다고 느끼지만, 일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은 매일 찾아오는데 그들 중에는 관심을 표명하

1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95.

고 책을 사가는 시골 여자가 많습니다. 이 큰 도시는 거의 모든 가정이 복음 전파에 문이 열려 있으며 여성들 사이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사람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¹⁵

이와 같이 아담스(James E. Adams, 安義窩) 선교사는 여선교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혼 여선교사 두 명을 선교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1904년 아담스의 부인 넬리 딕(Nellie Dick Adams)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고향 토피카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토피카에서 브라운 총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니면 대구에 미혼 여성 한 명쯤은 올 수 없을까요? 저희는 정말 미혼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 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청중 앞에서 남부지방의 여성사역을 위해 간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라고¹⁶ 여선교사의 필요성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했다. 당시 대구지부의 교인증가 추이를 보면, 1902년에 177명, 1903년에 477명, 1904년에 780명으로 급성장했다. 대구선교지부에는 선교 초기 남편 선교사를 따라온 아담스 선교사 부인과 존슨(Woodbridge O. Johnson, 張仁車) 의료선교사 부인만이 여성 선교를 분담하여 선교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형편상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어, 선교부에서는 노스(Miss Nourse) 여선교사 한 명만 임명해 주었다.¹⁷

대구·경북지역의 빠른 교인증가세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여선교사들을 도와 전도하고 교회를 형성하는데 전도부인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자발적인 전도활동을 하였으며 선교사들을 수행하여 지방전도와 가정방문을 통한 전도활동을 펴나갔다.¹⁸ 기록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최초 전도부인은 1902년 예배기록을 위해 전도부인으로 임명된 김명성이었다.¹⁹ 이후에 사경회를 통해 많은 전도부인들을 발굴하였으며, 이들은 선교사들을 수행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여행을 다니기도 하였고 때로는 독자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하기도

15 Adams, Mission Report, Taegu, June 20, 1901.

16 Adams, Mission Report, Taegu, May 14, 1904.

17 Adams, Mission Report, Taegu, December 6, 1901.

18 金貞順, 『韓國基督教女性運動史』(서울: 전국여전도회연합회, 1990), 76-77.

19 김명성은 방명원 조사의 아내로 대구·경북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성이다.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USA: 1987), 83.

하였다.

4. 전도부인의 입교 동기

양미강이 쓴 『승리의 생활』을 비롯하여 선교사 보고서, 신문을 통해 전도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구조 아래 남편의 축첩이나 외도, 그리고 시집의 박대에 따르는 소외가 기독교를 찾게 된 주된 이유였다. 전도부인은 대부분 과부이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아이들을 홀로 부양해야만 하는 가난한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경제적 소외로부터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게 되었다.²⁰

대구·경북지역 전도부인의 입교 동기에서도 비슷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전도부인 중에는 술장수²¹이거나 과부²²,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여인들이었다.²³ 이 지역에서 43년간 선교활동을 전개한 브루언(Henry Moro Bruen 1874-1959) 선교사는 *40 Years in Korea*에서 당시 대구·경북 지역의 전도부인 중에는 매우 천한 출신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물론 적은 수의 양반 신분인 여성들도 있었지만²⁵, 전도부인 대부분은 급여를 받는 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았다.

5. 대구·경북지역의 전도부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교 초기에는 전도부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여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가 직접 성경반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²⁶

20 양미강, “초기 전도부인의 신앙과 생활”, 『한국기독교와 역사』 2(1992), 95.

21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217.

22 『경북노회 제16회 정기회 회록』 1924. 6. 12.

23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467.

24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406.

25 『교회보』 1936년 6월 1일자.

26 김은미, “한국교회 초기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정론』 36(2018), 66.

여선교사들은 전도부인을 잘 훈련시켜 자신을 돕는 보조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²⁷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여선교사의 부족으로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전도부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학교육이 필요해졌으며 1897년 이후 겨울사경회, 성경반, 성경연구반, 성경학원 등 전도부인의 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가게 되었다.

(1) 부인사경회

대구·경북지역의 최초 부인사경회는 1901년 아담스 부인 넬리 딕(Nellie Dick Adams, 1866~1909)이 10명의 여성을 모아 시작하였다.²⁸ 이 사경회는 농한기인 겨울에 열렸다고 하여 ‘겨울사경회’라고 불렸다.²⁹ 겨울사경회는 아담스 부인의 지도아래 성경지식과 찬송을 가르쳤으며, 특히 성경을 돌아가며 읽었는데 읽기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³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성경을 읽고 언문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05년 겨울 부인사경회의 그 규모는 약 13개 시골 교회에서 60여 명의 부인들과 시내에 사는 20여 명의 부인들이 참석하여 12일 동안 열렸다. 강사는 여선교사들이 담당하였고 아침·저녁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경건회를 가졌으며, 교육내용은 한글공부, 성경읽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암송, 밤기도회, 성경공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³¹ 이 겨울 부인사경회는 참석인원이 점점 증가하였고 교육 내용도 과거보다는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아갔다. 당시 여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 전도부인을 양성하고 발굴하였다.³²

기록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부인사경회는 초기에는 연 1~2회 실시하다가 연 2회로 농한기(農閑期)에 실시했다. 사경회의 규모도 지방사경회, 도사경회,³³ 제직사경회, 연합사경회, 대사경회 등 다양했다. 사경회의 교육 내용은

27 양미강, “초기 전도부인의 신앙과 활동”, 67.

28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69.

29 부인사경회는 남자사경회와 동일하게 1년에 한번 혹은 두 번 열렸다.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85.

30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92.

31 Adams, Mission Report, Taegu, December 20, 1905.

32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71.

등급에 따라 반을 정하고 받은 성경 각 두 권씩 가르쳤다.³⁴ 사경회 중 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³⁵ 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는 날 진급증(수료증)을 수여하고 진급시켰다.³⁶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할 경우, 반드시 진급 증서를 제출하게 했다.³⁷

이와 같이 부인사경회는 교회지도자들, 특히 전도부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들을 발굴하여 훈련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신앙교육과 영성훈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 부인성경반, 정규반, 성경연구반

부인성경반이 최초로 조직된 것은 1897년 미감리회 소속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 1872~1956)이 평양 여자사경회 때에 전도부인 양성을 위해 임시로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³⁸ 장로교의 부인성경반은 1897~1898년에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체로 부인성경반은 10~12일 동안 열렸고, 두 반으로 나뉘어 2, 3개의 성경을 공부하였다. 따라서 부인성경반의 과정은 정해진 기간이 없었으며 무제한적으로 교육을 받았다.³⁹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초기 선교사 부인들이 성경반을 조직하여 초기에는 여성 학습자 모임으로 교리 문답을 공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광범위하게 운영되었다.⁴⁰ 부인성경반은 지방반과 도시반으로 나누어졌는데, 후에 성경연구반(institute)과 성경반(general class)으로 분리되었다. 지방반 중 구역반(district class)은 주일을 포함하여 6일간 열렸으며 여선교사가 항상 담당했다. 지역반(local class)은 오직 한 교회에서 열렸는데, 구역반보다 일정이 짧았다.

33 도사경회는 반을 조직했는데, 기도회, 합반공부, 저녁 강설은 윤상온 선교사로, 원입반은 윤영문 목사로, 학습반은 이원영씨로, 제작반은 강석진 목사로, 임시제작반은 권찬영 선교사로, 세례반은 김영옥 목사로, 종교교육 합반은 강병주 목사가 담당하였다. 『경안노회 제17회 정기회 회록』 1930. 6. 12.

34 『기독신보』 1917년 4월 25일자.

35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479.

36 『기독신보』 1926년 12월 1일자.

37 『교회보』 소화 11년(1936) 3월 15일자.

38 양미강, “초기 전도부인의 신앙과 생활”, 98.

39 양미강, “초기 전도부인의 신앙과 생활”, 99.

40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92.

일반반(general class)은 일주일 지속되고 일년에 한번 열리는데 그 구역의 모든 여성들이 초대된다. 여성들은 연료와 쌀을 가지고 와서 숙식하면서 참석했다.⁴¹ 성경반을 조직한 이유는 전도부인과 목회자의 도우미,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경반은 지역에 따라서 성경연구반이나 성경학원으로 승격하기도 하였다.

1910년 6월 대구·경북지역의 여선교사들은 유능한 전도부인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권서들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규반을 시작하였다. 정규반은 3년 과정의 학점제로 운영하였고, 출석은 필수였다. 학비와 수업료는 25센트이며 한 학기 수업 기간은 2주간이었다. 첫 정규반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은 28명이며 1주일이 지나면 시험을 쳐서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만이 진급할 수 있었다.⁴²

전도부인들은 성경반과 정규반을 통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나 여성들을 지도하는데 제반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 성경연구반이 개설되었다. 대구에서는 성경반과 성경연구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성경연구반은 한 달 가량씩 매년 두 학기로 진행되었다.⁴³ 교과목은 누가의 가르침, 위생학, 음악, 자녀교육, 음식 준비법,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역사 개요, 교회사, 특별 교리 문답과 구약성경 이야기, 교리 문답 등이었다.⁴⁴ 성경과 교리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성경 기초이론을 가르쳤고 전도부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전도부인 대부분이 봄과 가을에 열리는 성경연구반에서 공부하면서 전도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성경학교, 전도부인 사범 강습과

성경반이나 성경연구반은 전도부인을 양성하기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계절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성경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육을

41 Miss Switzer, Mission Report, Taegu, July.

42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57.

43 Miss Switzer, Mission Report, Taegu, July.

44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191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6(1997), 155.

위한 상설기관이었다. 당시 여성들의 지식수준이 점점 향상됨에 따라 전도부인에 대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였다. 대구에서는 1906년 교회 안의 일꾼들과 전도여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학교를 매년 봄, 가을 2년 과정으로 계획했지만 우선 6주간의 단기 사경회로 대신하기로 했다.⁴⁵ 그러다가 1912년에 대구여자성경학교가 신설되고 같은 해에 경북 안동에서도 여자성경학교가 신설되었다.⁴⁶ 대구여자성경학교는 초기에 수업기간이 10주였으며, 교과목은 오전에는 성경공부, 오후에는 중국어, 일본어, 산수, 위생 수업, 노래 연습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성경학교 여자부 교과과정은 성경연구반보다 훨씬 성경 과목에 비중을 두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성경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성경 외에 개인전도, 강도법, 음악, 심리 등으로 실천목회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동여자성경학교 경우에는 교과목은 성경 외에 위생학, 산술, 한문, 음악, 개인전도 등으로 편성하였다.⁴⁷

1926년 대구여자성경학교의 등록 인원은 65명으로 그중에 9명이 전도부인, 34명은 주일학교 교사, 1명은 목사 아내, 3명은 신명학교 졸업생, 2명은 명도학교 졸업생이었고, 연령은 16~58세였다.⁴⁸ 안동여자성경학교 경우는 개교 이후 10년간 164명이 재학(등록)했고 이들 중 9명이 졸업하였으며, 5명은 전도부인으로 채용되었다.⁴⁹

또 전도부인을 위한 사범 강습과도 개설되었는데, 강사는 대부분 여선교사들이 담당하였고, 12일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성경학교는 전도부인을 양성하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점점 자리 잡게 되었고, 전도부인의 연장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도부인 사범 강습과도 운영하여 우수한 전도부인을 양성하였다.

45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88.

46 김수진, 『70년의 백합화』 (쿰란출판사, 1994), 83.

47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 (1884-1934)*, 13.

48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373.

49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3.

Ⅲ.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1. 교육활동

초기 한국 교회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활동은 여선교사들이 중심이었고 전도부인은 그들의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급성장함에 따라 여선교사들은 그들의 역할을 점점 전도부인에게 이양해 주어 전도부인들은 부인 사경회를 인도하고, 부인성경반과 부인야학교를 운영했다.

(1) 부인 사경회 인도

전도부인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부인사경회 인도였다. 부인사경회는 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지방의 여성들을 위해 열렸으며, 여선교사들이 운영하였다.⁵⁰ 사경회는 초기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당시 무지한 여성 대중을 자각시키는 큰 원동력이었다. 또 사경회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도의 시작이었다.⁵¹ 여기에서 양성된 전도부인들이 다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대구의 경우, 아담스 부인은 매주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일과는 별개로 두 개의 여성 사경회를 이끌어 왔다. 당시 전도부인은 한 명뿐인데 그는 심방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였다.⁵² 1902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교회는 급성장하였고, 사경회는 점차 늘어나 1906년 연말에는 8개에서 10개 정도의 사경회를 경상북도 전역에 걸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⁵³ 1910년 1월에는 대구지역의 부인사경회를 실시하고 여기서 배출된 16명의 전도부인들이 짝을 이루어 여선교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주요 기도처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전도하

50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36.

51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서울: 政宇社, 1996), 149.

52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13.

53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85.

고 이와 비슷한 사경회를 실시했다.⁵⁴ 이들은 적어도 6일 수업으로 진행되는 30개의 반을 감당했다.⁵⁵ 오전 휴식 시간은 미용체조를 가르쳤고, 저녁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⁵⁶

특히 1914년~1931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경회 통계를 보면, 사경회는 1920~193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14년 이후에는 매년 남녀사경회가 각각 600~700회 정도 열렸고, 1917년 이후에는 여사경회만 600여 회 정도였다. 1925년 이후는 횟수가 더욱 증가하여 여사경회가 1,200회 이상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⁵⁷

1917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부인사경회 통계 역시 1917~1924년까지는 매년 50회 정도가 열렸으며, 1925년 이후에는 횟수가 더욱 증가하여 100~3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볼 때, 전도부인의 사경회 인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10년대의 사경회는 선교사들이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1920년 이후에는 점점 전도부인이 인도하였다. 전도부인의 사경회 혹은 부흥회 인도는 개교회에 한정되지 않았고 순회하며 사경회를 인도했다. 사경회를 통해 개교회의 부인전도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⁵⁹

(2) 부인성경반, 부인야학교 운영

부인성경반은 대구에 온 초기 선교사 부인들이 조직하여 초기에는 학습교인을 세우기 위한 정도의 공부 과정으로 시작하였다. 안동에서는 웰번 부인(Mrs. Welbon)이 1주일에 두 개의 부인성경반을 조직하여 운영했다. 그중 한 개는 나이 많은 부인들로 구성된 성경반이고, 다른 한 개는 젊은 부인들로 구성된 성경반이었다.⁶⁰ 부인성경반은 단지 성경지식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54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68.

55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68.

56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71.

5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14~1931) 참조.

5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14~1933) 참조.

59 『경북노회 제10회 정기회 회록』 1921. 6. 15.

불모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부인성경반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났고 활발하게 조직되어 1916~1917년 이후 여선교사들이 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도부인이 인도하는 부인성경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었다.⁶¹ 부인성경반의 규모는 전도부인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평균 약 40명 정도 모였다.

전도부인의 교육활동은 사경회나 성경반 개설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192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야학이나 강습소 형태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⁶² 여성 문맹률이 90% 이상이었던 당시, 사경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기가 필수였다. 당시 교회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당한 여성들을 위해 교회 내에 야학을 신설했다. 야학은 어린 소녀들에서부터 기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하였는데 한글, 산수, 위생, 간이주산, 한문 등을 가르쳤다.⁶³

대구·경북지역의 부인야학교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사경회에서 개교회에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전도부인을 파송하여 전도하는 일과 부인야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을 하였다.⁶⁴ 당시 부인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기로 작정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⁶⁵ 1920년대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교회 내 부인전도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었는데, 그와 궤를 맞추어 부인야학교도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부인야학교 운동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여성 문맹이 퇴치되고, 성경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였다.⁶⁶ 따라서 여성문맹 퇴치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지만 지적, 영적인 면을

60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0.

61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159.

62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1910~1930년대를 중심으로”, 151.

63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182.

64 신정교회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부인을 두어 신자가 많아 부인야학교를 설립하여 4,50명에 달하였다. 『경북노회 제10회 정기회 회록』 1921. 5. 15.

65 범어동교회가 야학교를 설립하여 50여 명이 공부하는 중 믿기로 작정하였다. 『경북노회 제9회 정기회 회록』 1921. 1. 12.

모두 고려한 운동이었다.

2. 전도활동

전도부인은 선교초기 여선교사를 도와 개인전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사실상 전도부인 만큼 쉽게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이들이 없었다. 그들은 성경판매, 순회전도, 해외전도 등 핵심활동인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1) 성경판매

권서는 대부분 성서공회와 교회, 선교회의 주관 아래 부인권서로 고용되어 단권 성경과 전도책자를 보급하며 전도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도부인은 여선교사 밑에서 부인권서들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도 사실상 부인권서의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⁶⁷ 전도부인은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구절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어서 교리적인 오해를 해소하고,⁶⁸ 믿다가 낙심한자들을 권면하고,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심지어 설교까지 하였다.⁶⁹

아담스 선교사는 아래의 선교 보고에서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선교 정책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경상도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현장사역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먼저 도시와 시골 마을에서부터 산골 마을까지 모든 시장을 방문하고 설교하면서 책 판매를 통해 광범위한 동쪽 전 지역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씨 뿌려진 지역을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세심하게 순회하여 서적을 판매보다 개인적인 전도에 더 비중을 두며 가능하다면 첫 번째 파종에서 뿌리를 내렸을 씨앗이 있는지 찾아보고

66 김희자, “초기 장로교회에 있어서 전도부인(Bible Woman)”, 『總神大論叢』(2006), 284.

67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서울: 지식산업사, 1991), 131.

68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도회, 1993), 128.

69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129.

거둬들이면서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회지역은 2,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 순회지역은 선교지부의 정규적인 복음전도 순회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⁷⁰

당시 대구선교지부의 핵심 선교 정책은 씨 뿌리는 것과 거둬들이는 일이었다. 씨 뿌리는 것, 즉 단권 성경과 전도 책자를 판매하는 권서 활동으로부터 시작했다. 전도부인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단권 성경과 소책자들을 판매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전도를 용이하게 하는 일이었다.⁷¹ 어떤 전도인은 아침밥을 먹기 전에 자기 동네에서 60권을 팔았는데, 책값은 현금 대신에 곡식을 받기도 하였다.⁷² 어느 전도부인은 '환자들을 방문하고 설교도 하였으며, 그녀는 그해 수백 권의 소책자도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³ 이와 같이 초기에는 전도부인들이 단권 성경과 전도 책자를 판매하다가 점점 가벼운 기독교 서적을 팔았는데 그중에는 괴질병 방법책, 가정위생, 상처치료, 파리와 병의 관계 등도 있었다.⁷⁴ 전도부인은 생활을 개선하도록 계몽하기도 하고 영혼구원, 어문장려, 문맹퇴치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2) 순회전도, 해외전도

초기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 전도부인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전도활동을 하게 하였다. 당시 지방전도회, 부인전도회, 성경학교, 병원 그리고 심지어 개인이 전도부인을 파송하였다. 아래 내용은 경북노회 서북시찰 전도 형편 보고이다.

개인전도는 전만 못한 형편이오나 각 교회가 남녀 전도회를 조직하고 전도하오며 여전도인을 많이 청하여 전도하는 바 김달이씨는 상주지방, 정남희씨는 약목과 선산지방, 김경수씨는 군위와 칠곡지방, 김순남씨는 달성군 침산·조야·칠곡읍·팔달 4처 교회를 보게 하였사오며, 안 목사의 경영으로 선우훈

70 Adams, Mission Report, Taegu, May 11, 1898.

71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102-103.

72 Harry A. Rhodes,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 p.10

73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136.

74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42.

목사가 서북지방에 와서 전도하는 중이오며 제직회 시에 특별히 금년은 전도
년으로 작정하고 크게 활동하여 전도케 하였사오며⁷⁵

대체로 각 교회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전도부인을 세워 전도활동을 전개 하였다.⁷⁶ 전도부인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자신이 파송된 지방에서 전도집회의 형식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였다.⁷⁷ 또한 노회 차원에 지방마다 전도 부인을 세우도록 권장했으며,⁷⁸ 특히 그들은 연약한 교회를 돌보았고,⁷⁹ 심지어 개 교회를 맡아 시무하기도 하였다.⁸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1915년~1935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전도부인 및 원입교인을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남녀구성비이다. 즉 전도인의 경우, 1917~1921년을 제외하고는 여전도인이 남전도인의 수를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1920년대 후반에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3:1로 나타난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선교의 주요 대상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회는 더 많은 여전도인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1934년에 활동한 전도부인의 숫자는 64명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여전도인이 증가하는 1932년 이후 원입교인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9,000~12,000명에 이른다. 이는 1932년 이전의 5,000여 명보다 배가 많은 숫자이다.⁸¹

대구·경북지역 전도부인회의 영혼구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까지 확산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전도부인 해외 파송은 19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신명학교 전도회는 울릉도에 여전도인을 파송하였고 회원 중 외국 선교사로 간 이가 2명이 있다.⁸² 1933년에는 경북여전도회연합회가 일본 나고야에 있는 재일 동포에게 전도하기 위해 강성숙 전도부인을 파송하였다.⁸³ 당시 울릉도와 해외선교 사업은 개 교회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75 『경북노회 제16회 정기회 회록』 1924. 6. 12.

76 『경북노회 제9회 정기회 회록』 1921. 1. 12.

77 『경안노회 제4회 정기회 회록』 1923. 6. 13.

78 『경안노회 제2회 정기회 회록』 1922. 6. 14.

79 『경안노회 제14회 정기회 회록』 1928. 12. 18.

80 『경안노회 제19회 정기회 회록』 1931. 6. 16.

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55~1935) 참조.

82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119.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경북지역의 교회 내 부인전도회가 경북노회 전도국으로 보낸 선교비를 기초로 해외선교를 지원하였다.⁸⁴ 해외선교에 동참한 각 교회의 부인전도회는 월례회 때마다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였다.⁸⁵

IV. 부인전도회 조직과 활동

전도부인의 활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 교회 내에 부인전도회를 조직한 일이다. 부인전도회는 1898년 2월 20일 널다리골 교회에서 조직되면서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은 1912년 대구제일교회에서 지혜리, 백정옥, 조영주, 김연홍, 임성례 등이 발기하여 조직되었다.⁸⁶ 부인사경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신앙부흥에 힘쓰면서 농촌교회를 원조(援助)하고, 개인전도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부인전도회의 조직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경회 이후에 조직되었다. 사경회에서 부인전도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와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또한 전도부인을 세워 전도활동을 전개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였다.⁸⁷ 이러한 부인전도회는 1924년 성마르다(Martha Switcher, 1880~1929) 선교사⁸⁸의 노력으로

83 경북여전도회 연합회는 일본 나고야에 강성숙 전도부인을 3년간 선교비 36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파송했다. 후원금은 고 성마르다 유증 550원, 경남노회 지방여전도회 연합회 100원, 경안노회 지방여전도회 연합회 100원, 경북노회 지방여전도회 연합회 350원, 계 1,100원으로 하였다. 『경북노회 제32회 정기회 회록』 1934. 1. 2.

84 『경북노회 제18회 정기회 회록』 1925. 6. 10.

85 『구천교회 부인전도회 제90회 회록』 1938. 10. 9.

86 이상근, 『대구제일교회90년사』 (대구: 대구제일교회, 1983), 83.

87 『경북노회 제7회 정기회 회록』 1920. 1. 21.

88 성마르다 선교사는 1880년 8월 22일 미국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유년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후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11년에 대구에 와서 18년 6개월 동안 희생적인 사역을 감당했다. 그녀는 여성경학원을 설립하고 원장으로 섬겼으며, 명도학원 설립 당시 후원하였다. 또한 각 교회의 여전도회 설립, 경북여전도회 연합회를 설립하고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설립에까지 노력하였다. 『기독신보』 1929년 5월 8일자.

대구·경북지역 내에 70개 처가 조직되었고,⁸⁹ 1925년에 이르러 박우만(Gerda O. Bergman) 선교사⁹⁰의 후원과 협력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연합체인 경북부인전도회 연합회가 조직되면서 부인전도회의 설립 운동과 성장세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⁹¹ 그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부인전도회가 87개 처가 조직되는 성과를 얻었다.⁹² 1928년~1939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경회 및 부인전도회 수를 보면, 1928년의 경우, 사경회로 모인 횡수가 경북노회 492회, 평양노회 201회, 황해노회 211회, 기타노회 90회 이하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타 노회보다 경북노회는 활발하게 사경회 운동을 전개하였다.⁹³ 부인전도회 설립 횡수를 보면, 경북노회는 444개 처이고 타 노회는 80개 처 이하이다. 이것은 사경회를 통해 각 교회가 부인전도회를 조직한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북노회는 1928년부터 1935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25개 노회 중에 가장 많은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으며,⁹⁴ 1928년부터 1939년까지 경북노회·경안노회의 경우 매년 200여 개 처 이상 부인전도회가 조직되었고,⁹⁵ 1934년·1935년의 경우에는 300여 개 처가 조직되었다.⁹⁶ 이는 대구·경북지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으며, 이는 사경회와 부인전도회 설립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부인전도회는 조직과 함께 전도부인을 파송하여 전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해회 선교사업에도 후원하였다. 경북부인전도회 연합회는 경북노회

89 『경북노회 제17회 정기회 회록』 1925. 1. 7.

90 박우만 선교사의 대구·경북지역의 선교활동과 부인전도회에 끼친 영향을 의성 구천교회의 여전도회 특별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천교회 여전도회는 “우리 대한 예수교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여성들을 위하여 외국에서 오셔서 35년간이나 몸과 마음을 받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하신 우리 여전도회원에 어머니 되시는 박우만 여선교사에 기념관을 건축한다는 잡지를 받고 마음에 기쁨을 마지못하여 부족하나마 회원이 연보를 하니 3,400원을 대구 본회에 보내기로 가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천교회 여전도회 월례회 회록』 1950. 4. 16.

91 1926년 3월 28일 경안여전도회 연합회 창립 당시 3개 지회와 61개 처를 조직하였으며, 창립목적 을 보면 ①불신자에게 전도 ②여조사 두고 ③산동선교비 보조 등이다. 『경안노회 제12회 정기회 회록』 1927. 6. 16.

92 『경북노회 제18회 정기회 회록』 1925. 6. 10.

93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7회 회록』 (1928), 123-24.

9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28~1935) 참조.

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28~1939) 참조.

9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1934~1935) 참조.

의 기관지인 「교회보」에 부인전도회 월례회 순서를 매월 부록으로 실어,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부인전도회에 제공하였다.⁹⁷ 부인전도회는 매월 1회 부인전도회 월례회로 모여 해외 선교활동 보고 및 전도부인의 활동 보고를 듣고 전도사업을 점검하였다. 특히 부인전도회 순서 중 잡지설명 순서 시간에는 전도부인이나 부인전도회의 주요 인물이 낭독하였고, 기사의 내용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신앙 인물을 소개하고 복음 전도자의 소명의식을 심어주었으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소개하여 부인전도회 회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다.⁹⁸

특히, 아래 내용은 풍기교회 내 부인전도회의 사업 내용으로, 당시 부인전도회의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 영주군 풍기교회 부인회 사업은 여좌함.⁹⁹

1. 전도인을 세우고 수년간 각처에 전도한 결과 본 군 안면면 룡산교회를 설립하여 4,50명의 교도가 회집케 되었으며
2. 본 교회 목사를 여러 방면으로 돕는 중 의복을 년년히 공급하고 또 목사의 모친상에 상비를 만히 부담하였으며
3. 조석량미의 10분지 1석을 성미연보로 더러두었다가 매 금요일 각 구역 권찰회 때에 모하여 이것으로 여 조사의 봉급을 하며
4. 본 교회 예배당 건축에 100원을 연보하였으며
5. 본 교회 경연인 영신학교는 유지할 방침이 업서 폐지될 형편인데 부인회는 이를 애석히 녀여 청년면려회와 협력하여 유지하기를 로력 중이며
6. 각 구역을 덩하고 금요일 마다 모혀 예배하고 담화함으로 린근 부녀들이 만히 참여하여 자미를 본 결과 쥬를 밋고나오는 자 만타더라

V. 전도부인과 교회 설립

97 『경북노회 제32회 정기회 회록』 1934. 1. 5.

98 잡지설명 내용을 보면, 래브래들의 첫 선교사, 한울난은 천국 순교자 됨, 조선예수교 장로회 여전도연합대회 제팔회 보고서, 청적이 직분, 폐병과 크리스마스씨, 주안에서 하나이 되자, 복음 전하는 간호부(화답 기도문), 구속 신은 오직 하나이시라, 희생적 사업가, 노력과 성공, 개인전도, 힘쓰자 즈면 만날 것이라 등을 실었다. 『교회보』 1935년 7월 15일~1937년 4월 15일자.

99 『기독신보』 1926년 2월 17일자.

당시 전도부인은 전도활동, 교육활동, 여성계몽운동을 핵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도활동은 전도부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었는데, 그들은 각 지방을 다니며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문제에 직면하여 상심한 교인들을 심방하여 위로하고, 일정한 교인이 형성되면 교회를 설립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교회 설립은 1922년 이전에는 대부분 대구선교지부 소속 선교사와 조사들이 주도하였는데, 1921년 2월 동산병원 전도회가 창립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교회 설립은 전도부인을 파송한 기관인 지방전도회, 부인전도회, 성경학교(경안여자성경학교, 대구여자성경학교), 미션스쿨(신명학교)¹⁰⁰, 기독교 병원(동산병원, 성소병원), 아담스 전도기금¹⁰¹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동산병원 전도회는 전도인을 선발한 뒤 약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전도활동을 하게 하였다. 전도회는 교회 설립을 시작하면 더 이상 돈을 지원하지 않고, 교인들이 힘껏 헌금하여 교회당을 마련토록 했다. 전도회의 업무는 전도 장소 결정, 순회 장소 결정, 전도부인 시무 배정 등을 담당하였는데 전도사 시무 배정은 3개월 주기로 바뀌었다. 순회 전도는 낮에는 가정 방문하여 낙심한 자를 권면하여 개인 전도하고 또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밤에는 전도 강연과 성경, 찬송을 가르치고 언문(한글) 강습 등으로 진행되었다.¹⁰² 또 전도부인들은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순회 전도를 나가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전도지나 위생 팜플렛을 선반 위에 얹어두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100 신명고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信明百年史』(대구: 방형식디자인, 2008), 54-55.

101 아담스 복음전도기금(The Adams Evangelistic Fund)은 1924년 아담스 선교사가 자신의 사비(私費)와 기부를 받아 마련한 것을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 오지 못할 것을 깨닫고 안동에서 선교하고 있는 차남 벤자민(Ben N. Adams, 안변암)과 대구에서 선교하고 있는 장남 에드워드(Edward Adams, 안두화)에게 맡겨 자신을 대신하여 선교 사업이 진행하게 하였다. 이 기금으로 1921년부터 1930년까지 10년 동안 조사를 파송하여 72개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경상북도에 있던 전체교회 수의 15%에 해당되며 또 대구를 포함한 경북노회의 교회 총수의 25%에 해당되는 숫자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금으로 이들 교회를 운영하였고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서명원·이승익 역, 『韓國教會成長史』(서울: 大韓基督敎書會, 1979), 119-120.

102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41.

하였다.¹⁰³

특히 동산병원 전도회는 전도목사 1인에 전도부인 1인을 편성하여 순회전도 지역에 배정하였다.¹⁰⁴ 전도부인들은 순회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교회 설립에 직접 헌신한 전도부인은 이주현, 정일선, 최경애, 윤복희, 김남수, 최순은, 이민응, 최경숙, 김순애, 진기숙, 손주안 등 11명이다. 이들 전도부인들이 설립한 교회는 모두 60여 개 교회이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⁵

이주현: 우록교회(달성군, 1922)

정일선: 운대교회(경주군, 1922), 해선교회(영천군, 1922), 운산교회(고령군, 1922)

최경애: 신지교회(청도군, 1922), 명포교회(성주군, 1923), 팔달동교회(칠곡군, 1923), 포석교회(경주군, 1923), 구야교회(금릉군, 1923)

최순은: 대명교회(경산군, 1925)

승복희: 강교교회(경주군, 1923), 대광교회(금릉군, 1926), 본촌교회(영천군, 1923), 대북교회(군위군, 1923), 건천교회(경주군, 1923), 묵어교회(선산군, 1924), 이화교회(군위군, 1923), 유금교회(경주, 1932), 교동교회(김천시, 1934)

김남수: 지슬교회(청도군, 1923), 정각교회(영천군, 1924), 백안교회(달성군, 1924), 구룡포교회(영일군, 1924), 고지동교회(영천군, 1925), 두만동교회(칠곡군, 1925), 문무교회(금릉군, 1926), 아화교회(경주군, 1927)

이민응: 하사교회(영일군, 1924), 달산교회(군위군, 1924)

김순애: 달천교회(달성군, 1924), 곡란교회(경산군, 1924), 학산교회(포항시, 1924), 옥정교회(의성군, 1924), 냉수교회(영일군, 1925), 창천교회(성주군, 1925), 대울교회(군위군, 1925), 대곡교회(영천군, 1926), 금호교회(칠곡군, 1926), 오동교회(달성군, 1926), 장동교회(의성군, 1927), 온막교회(청도군, 1927), 안인교회(달성군, 1927), 노곡교회(대구시, 1928), 가천교회(달성군, 1928), 오산교회

103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493.

104 『경북노회 제35회 정기회 회록』 1937. 3. 25.

105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46-50.

(청도군, 1929), 금오교회(의성군, 1930)

최경숙: 우라교회(경주군, 1925)

손주안: 고모교회(경산군, 1925), 심창교회(영천군, 1925), 구룡교회(성주군, 1926), 레리교회(청도군, 1927), 방촌교회(달성군, 1928), 구촌교회(청도군, 1928), 대천교회(청도군, 1929), 기성교회(칠곡군, 1930), 입실교회(경주군, 1930년), 양촌교회(상주군, 1930), 부지교회(경주군, 1932), 동내교회(경주군, 1932)

진기숙: 도동교회(청도군, 1935)

동산병원 전도회는 신명학교, 성경학교, 칠성교회, 성서공회, 대구선교지부 등의 협력을 받아 추진하였고, 대구·경북지역의 전도 사업에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¹⁰⁶ 동산병원 전도부는 경북노회 때마다 노회 전도부에 전도 상황을 보고했다.¹⁰⁷ 이민용 전도부인의 전도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심히 무식, 빈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까 의심하여 초조한 마음으로 전도하였는데, 의외로 모든 부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받아 믿고, 즉시 우상단지를 의심 없이 들어 내고, 촌내의 옛 풍습을 일대 청결하였다.'¹⁰⁸라고 하였다. 1925년 청도지역에서 활동한 전도부인 최경숙은 '여자의 정도는 더욱 암매(暗賣)하여 방직(紡織)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천인들과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치면서 차차 마음을 얻어 부인 11인과 아이 5인의 결신자를 얻었으며, 그중에 특히 감사한 것은 3가정에서 우상까지 버리는 것을 보았다.'¹⁰⁹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전도부인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생활개선에 힘을 쓰기도 하면서 여성개화를 위한 계몽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아담스 복음전도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전도부인을 파송하였는데, 그 선교방식은 한곳에 1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공효(功效)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공효(功效)가 있으면 교회 설립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이미 교회가 설립된 10리 내에는 전도인을 파송하지 않는 것으로

106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45.

107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42.

108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124.

109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140.

결정했다.¹¹⁰ 아담스 복음전도기금으로 남녀전도인 17명을 파송하여 전도한 결과 신설교회를 많이 설립하였다.¹¹¹ 또한 각 교회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교회가 설립되지 않는 지역에 전도부인을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한 곳도 많았는데, 1921년 한 해 동안 경북노회 경내에서 60여 교회가 새로 설립되었고 교인 수는 2천여 명에 달하였다.¹¹² 심지어 한센병원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십일조로 전도인을 세워 전도 사업에 참여하였다.¹¹³

VI. 나가는 말

전도부인은 당시 유교의 가부장적 구조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과 여성을 위해 앞장서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초기 대구·경북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부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도부인에 대한 경제적인 처우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다가 1934년 전도부인에 관한 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그해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경북노회는 교회 직원으로 포함시켰다.

전도부인은 사경회를 통해 발굴되어 성경반, 성경연구반, 성경학교, 전도부인 사범 강습과 등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들은 부인사경회, 부인성경반, 부인야학교 등의 교육 활동을 담당하였다. 특히 1930년대 사경회는 원입반, 학습반, 재직반, 임시제직반, 세례반, 종교교육반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학교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개 교회에 부인야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성경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 여성 문맹을 퇴치하기도 하였다.

전도활동은 초기 대구·경북교회를 일구었던 전도부인들의 가장 주요 활동이었다. 그들은 선교초기 여성교사를 도와 개인전도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사실상 전도부인 만큼 쉽게 대중들과 접촉 할 수 있는 이들은 없었다. 그들은 복음의

110 『경북노회 제10회 정기회 회록』 1921. 6. 15.

1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7회 회록』 (1928), 110.

1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회 회록』 (1921), 119.

1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8회 회록』 (1919), 99.

불모지를 찾아다니며 성경도 판매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부인전도회를 조직하고 부흥시켜 교회를 세워 나아갔다. 이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본까지 이어졌다. 이들 전도부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헌신한 자들로 대구·경북교회의 성장의 주역들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초기 교회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도부인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발굴하여 그들의 삶과 활동 전반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대구·경북지역에 있어서 3·1만세운동과 여성절제 운동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고 초기 전도부인들의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dams. Mission Report.
- Clara Hedberg Bruen. *40 Years in Korea, USA*, 1987.
-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1884-1934).
- Switzer, Mission Report.
- Women's Bible Training Classes, K. M. F. (October 1908).
- 김병희 편역. 『경북교회사』. 서울: 코람데오, 2004.
- 김수진. 『70년의 백합화』. 서울: 쿤란출판사, 1994.
- 김은미. “한국교회 초기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정론』 36(2018), 59-77.
- 김희자. “초기 장로교회에 있어서 전도부인(Bible Woman).” 『總神大論叢』(2006), 269-291.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9.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경안노회 70년사(1921~1991)』.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1992.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서명원/ 이승익 역. 『韓國教會成長史』.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9.
- 신명고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信明百年史』. 대구: 방형식디자인, 2008.
- 쌍계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쌍계교회 100년사(1903~2003)』. 대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쌍계교회, 2003.
- 양미강. “참여와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191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6(1997), 139-179.
- _____. “초기 전도부인의 신앙과 생활.” 『한국기독교와 역사』2(1992), 91-109.
- 여성사연구회. 『한국교회 전도 부인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이만열 외 공저. 『대한성서공회사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한국기독교사연구논고-』.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이상근. 『대구제일교회90년사』. 대구: 대구제일교회, 1983.
- 이우정. 『한국 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1989.
-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서울: 政宇社, 1996.
- 전도회70주년연혁사 편찬위원회. 『전도회70주년연혁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도회, 1993.
-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 『경북노회 회의록』
- 『경안노회 회의록』
- 『교회보』
- 『구천교회 부인전도회 회의록』
- 『기독신보』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

[Abstract]**Training and Activity of Bible Women in the Early Presbyterian Church in Daegu, Kyoung-Book Area**

Byong Hee Kim

(Dae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In the early Korean church ministry, the role and activity of Bible Women became a cornerstone of church growth in the Daegu, Kyoung-Book area and broadly supported Korean church growth. Their various roles and sacrificial services lead to church growth in the Daegu and they also influenced in social life in the area. However, their contribution to local churches and society had been excluded from historical recording that was mainly focused on male leaders' work.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eal how Presbyterian churches in the early church in the area trained Bible Women as well as what important roles they had played in contributing to the local church revitalization and growth in the area.

They played a role in spreading the gospel that they received from foreign missionaries who were not familiar with Korean traditions. Bible Women were selected from various groups including the Non-regular Women's Bible Class, Women's General Class, Institute, and Regular Bible School. The selection was made according to the Nabius Mission Policy. The selected women were trained and nurtured, and then they were appointed as Bible Women.

They operated the Women's General Class and educated women, which improved their lives and also contributed to exterminating

their illiteracy and the woman enlightenment movement. They were also actively involved in evangelism by participating in selling the Bible, local evangelism, and overseeing evangelism. They visited local areas and met with Christians in comforting and encouraging them. They also helped local churches by establishing the Women's Evangelism Committee. In addition, they evangelized local areas where there were no churches and established churches. Although they faced many economic hardships due to insufficient wages, their sacrificial and devoted services became a driving force for church growth and revitalization in the Daegu, Kyoung-Buk area.

Key Words: Bible Women, Bible class, general class, institute, bible women's conference, pharmacy school

